



사사키 기요토씨

1929년 11월 25일생

아버지가 극증(劇症)형 미나마타병으로 돌아가신 것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하여, 찻소와의 자주교섭에 기여한 일이며, 자신이 미나마타병의 고통과 싸워온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997년 4월부터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인으로 됨.

미나마타병 환자연합회장.

미나마타병자료관 증언부 부회장

구마모토현 아시키타군 아시키타초 메시마 재주

저는 1955년, 26살에 결혼한 당시부터, 관절이 아프기도하고 저리기도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선조대대로 물려받은 어업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때부터 수은에 침범당했습니다. 1956년 장녀가 태어났지만, 건강상태가 나빠지기만 할뿐이었습니다. . . . 그러나, 딸 건강에 신경쓰지도 못하고 계속 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959년 무렵, 미나마타병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어업보상을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59년 11월의 어민소동에서는, 시라누이(不知火)해 연안의 어민 약 2000명이 찻소공장에 몰려들었습니다. 물론, 나도 선두에 서서 참가하였습니다. 그 때, 우리 어민들의 생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웠습니다. 옛날에는 풍어가 연속됐던 미나마타만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아버지한테 나타났던 미나마타병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되고, 나중에는 무참하게 돌아갔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아픔을 이겨내지 못해 침대에서 발광(發狂)하기도 해서 아버지를 침대에 묶어 놓은채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이런 아픔을 100일정도 겪은신후 아버지는 돌아갔습니다. 미나마타병의 아픔으로부터 해방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아버지의 최후를 목격한 나는, 원인이 찻소에 대해 진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후 저는 미나마타병피해자구제의 길에 들어섰고, 찻소와 행정과의 교섭을 거듭해왔습니다.

미나마타병문제는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한 뿐만아니라, 주민들간의 감정도 훼손하는 심대한 영향을 지역사회에 끼쳤습니다. 저는 이런 비참한 공해를 절대로 두 번 다시 거듭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미나마타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갈겁니다.